

택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도시를 바꾼 공공디자인



③ 뉴욕의 똑똑한 도시 정책

① 스마트 디자인

소통, 협력, 정보의 공유. 똑똑한(Smart) 도시만이 아니라 광주는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도 지향하고 있는 명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만남, 악수, 보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환경, 시스템,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여기서 그 도구가 된다.

뉴욕시·디자인업체 도시 개선 프로젝트
 ‘뉴욕 명물’ 노란 택시 편리하고 산뜻해져
 ‘공차’ 방지 시스템·당뇨 환자 주차 등
 ‘시민 삶의 질 높이기’ 교통·의료까지 확대



‘스마트 디자인’은 공공프로젝트 성격의 뉴욕 노란 택시(Yellow Cab) 신모델 디자인에도 참가했다. 사진은 뉴욕 JFK공항 앞에 늘어난 노란 택시(Yellow Cab).

노란 택시(Yellow Cab) 신모델, 주방기기 OXO 등은 물론 우리나라의 한 카드업체의 신제품 디자인까지 맡은 뉴욕의 디자인 업체는 하나의 사무실은 쓰고 있었다. 벽이 없다. 회사 입구에서는 안내센터가, 그 옆으로는 크고 작은 회의실이 있다. 사무실은 모두 고개를 틀거나 약간 일어서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구조였다. 13층 사무실의 밖으로는 아름다운 뉴욕 경관이 펼쳐져 있다. 월요일인데도 좌석 곳곳은 비어 있으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 회사의 이름 자체가 ‘스마트 디자인’이다. 1980년 창립된 이 업체는 일상 생활용품 디자인으로 시작해 이제는 디지털은 물론 피지컬 디자인까지 영역을 확대했으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뉴욕에 본사, 샌프란시스코와 런던에 지사가 있으며,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인도, 유럽 등의 대기업으로부터도 의뢰를 받고 있다.

직원 1명의 회사에서 120명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들은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다. ‘스마트’하다는 판단의 주체를 ‘소비자 또는 사용자’로 분명히 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히트작은 25년 전인 1989년 처음 나왔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감자깍는 기계로, 손잡이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설명하는 가이드 역시 이 기계를 구입했다.

리처드 화이트홀(Richard Whitehall)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은 “한 고객이 부인이 애플파이 요리를 위해 사과를 깎는데, 쉽게 미끄러져 불편해했다고 전해왔다”며 “직원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 뒤 제품을 내놨는데, 그것이 지금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상품을 디자인한 이 업체는 유니버설 디자인(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



자신들이 디자인한 부엌용품을 설명하고 있는 디자이너 커스 클리머.

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자리를 잡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뉴욕의 명물 노란 택시(Yellow Cab)의 신모델 디자인이다.

구모델은 휘발유를 쓰는 미국산 세단, 신모델은 하이브리드의 새롭게 디자인된 일본산 SUV다. 이 신모델은 뉴욕의 공공프로젝트 성격으로, 뉴욕시당국, 비영리단체인 디자인 트러스트 포 퍼블릭 스페이스, 일본의 자동차업체 닛산, 그리고 스마트 디

자인이 함께 창출해냈다. 택시의 주고객이 관광객, 쇼핑객, 주부라는 점에 착안해 짐을 갖고 타고 내리는데 편하게 했으며,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택시 지붕 디자인, 10~20분이면 내리는 승객과는 달리 하루종일 에어컨 바람을 맞아야 하는 운전사를 배려한 냉방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알리스타 브래미(Alistair Bramley) 수석 산업디자이너는 “어떤 디자인을 하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해 보고 결정한다”며 “노란 택시 신모델의 경우 구모델을 타서 직접 승객들과 운전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이를 디자인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택시가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 새로운 택시모델을 공모했으며, 이 공모에 선정된 닛산 측은 비영리 공공디자인단체에 손을 내밀고, 다시 이 단체가 스마트 디자인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직까지는 택시 디자인에 제한됐지만 앞으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공차’를 방지하는 등의 미래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스마트 디자인은 영역을 이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주차기’까지 확장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손 감각에서 어려움을 감안해 혼자 주차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이너 커스 클리머(Kirsten Climer)씨는 “스마트 디자인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술은 항상 그 적용에 있어서 조심해야하며,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 디자인’ 리처드 화이트홀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

“소비자 의견 반영한 디자인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 스마트디자인 회사를 소개한다면.
 ▲1980년 창립해 34년이 됐다. 일상 생활용품 디자인부터 시작해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며,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디자인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 유명한 디자인이 있는가.
 ▲부엌용품 옥소(oxo), 노란 택시 신모델, 다양한 건강제품, 한국의 경우에는 현대카드를 디자인했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디자인에 담는데 노력하고 있다.

- 노란 택시 신모델은 지역사회 공헌 차원인데.
 ▲참여한 비영리 단체에 전력을 어떻게 잘 것인가에 도움을 주었다. 도시를 개선시키는 데 일조해 기뻐했다. 택시는 뉴욕의 절대적인 필수품이며, 개선안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 크고 작은 회의실이 눈에 띈다.
 ▲디자인은 아름다운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마케팅, 엔지니어링, 판매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도 계속 논의를 해야하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비로소 ‘스마트’해진다.

- 노란 택시 신모델에 대한 반응은.
 ▲뉴욕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로 관광객,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아주머니, 쇼핑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택시는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타고 내리는 것이 불편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에도 미흡했다. 쇼핑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음 편히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놔야 하는 운전사들을 위해 승객과 운전사의 냉방 시스템을 분리하기도 했다. 모두들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ISHUI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